리폼드대학교 신학대학원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USA
대한예수장로교회 미주합동총회 인준신학교
2012년 봄학기(신.편입)학생모집
1342 W. Adams Bl, Los Angeles, CA 90007-1635
Tel: (818)337-8280 / E-Mail: spcr113@hotmail.com

기독일보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E-mail: usajk@gmail.com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융자, 차종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Tel. 213-739-0403 Fax. 718-228-9506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une 21, 2012 Vol.344

북한 인권 문제에 기도의 힘 모아

해외300인목사단 주최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한 기금모금 만찬 개최 돼

해외300인목사단 주최로 탈북자 북송을 반대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만찬이 성대하게 열렸다.

최근 LA 뿐 아니라 전세계 50여 개 주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탈북자 북송 반대 시위를 중국 영사관에서 벌인 해외300인목사단이 17일 오후 5시 이 운동을 위한 기금 모금 만찬을 열었다.

LA한인침례교회(박성근 목사)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목사), 손인식 목사(베델한인교회), 송정명 목사(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 민경엽 목사(나침반교회),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김인식 목사(웨스트힐장로교회), 송종호 목사(은혜한인교회 부목사) 외 각 교회 평신도들도 참석했다.

집회는 1부 찬양과 기도, 2부 만찬, 3부 메시지, 4부 북한인권운동 사역 동영상, 5부 합심기도로 구성됐고 기부약정서를 통해 기금을 모금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 행사에서 송정명 목사는 〈전 LA 총영사로부터 들은 북한인권과 선교〉라는 주제로, 박희민 목사는 〈탈북자 인권 유린 국제 여론 주도의 중요성〉을 강연했다. ➡ 3면에 계속

극동방송이 남가주 지역에 방송을 시작한다. (왼쪽부터) 방일용 극동방송 서부운영위원장, 김준원 LA 지사장, 진웅 우리방송 사장, 김흥수 회장.

극동방송 LA진출 "희망 전할 것"

한국 극동방송(회장 김장환 목사)이 LA에 진출, 오는 7월 2일부터 방송을 시작한다. 극동방송은 지난 5월 29일 서울 극동방송 본사 사무실에서 LA 우리방송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남가주에서 극동방송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4시간(오전 5시~7시, 오후 10시~12시) 우리방송(AM1230) 전파를 통해 방송된다.

19일 오전 LA 한인타운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극동방송 LA 지사장 김준원 목사는 "창사 56주년을 맞아, 우리방송을 통해 이민사회에 첫걸음을 딛게 됐다. 우리방송과 경험 및 프로그램 노하우를 나누며 동반자로서 함께 걸어가려고 한다"며 "어두운 소식이 많은 시대에 밝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기간 시험 방송으로 운영되는 이 방송 프로그램은 한국에서 제작되며, LA 이슈들도 한국으로 보내져 제작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방송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아직 시작 단계지만 미국에서도 점진적으로 발전해갈 것"이라며 "앞으로 1.5세와 2세가 참여하는 영어방송을 꿈꾸고 있다. 아침과 저녁 시간에 하루를 여닫는 열쇠의 기능을 하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방송 진웅 사장은 "한국 최대의 기독교선교방송인 극동방송과 우리방송과의 만남은 크리스천 인구가 75%가 넘는 이곳 이민사회에 또 다른 신선한 자극제가 될 것이며, 한인 이민방송사에도 한 획을 긋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극동방송은 지난 50여년 동안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영어권을 향해 매일 24시간씩 복음을 전해온 대표적인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이다.

LA 지사 문의) 562-947-4651

토마스 맹 기자

예수님의 목회가 이민목회의 정답

제4회 이민신학 심포지엄, 박희민 목사 주제강연

제4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개척세대와 함께 하는 차세대 목회'란 주제로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성영락교회 EM 예배실에서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복합문화에 대한 이해와 목회 리더십, 복합문화 속에 있는 2세 교육 문제를 깊이 다뤄 이민교회를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 행사는 남가주한인목사회와 이민신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40여명의 목회자 및 사역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드러냈다.

첫 주제강연에 개척세대 목회자인 박희민 목사가 '현 세대 및 차세대 목회자에게'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박 목사는 "이민목회는 갈등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리더십을 펼칠 수 있는지, 창의적인 목회를 펼칠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된다"고 서두에서 밝혔다.

그는 "1세 교회는 자꾸 싸우는 교회로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있다. 또 많은 목회자를 양산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도 무시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단계마다 적절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결론적으로 1세대와 차세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목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예수님의 사역 주제는 하나님 나라였다. 오늘날 이민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다"며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가치관, 비밀, 축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목회의 본질에 대해 밝혔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셨으며 치유하셨다"며 "결국 우리의 목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양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맹 기자

TAX 문제 전문
자산동결 및 은행구좌 차압해결, 밀린세금삭감, 세무감사대비
전 IRS 행정관, 감사관, 수사관 40년 경력의 세법변호사, CPAs

Clients	Case (Dec/11~Jan/12)	Results
Mr.Hwang,W	IRS $62,317	합의 $8,218
Mr.Lemonnier,H	FTB $118,874	합의 $1,700
Ms.Wilson,M	IRS $450,190	합의 $20,160
Mr.Kim,H (C.Corp)	BOE	Sales Tax Audit Audit Dismissed
Mr.Rogers,A	IRS $327,280	Levy lifted & $500/mo
Mr.Farley,C	IRS $3,112,350	합의 $0

KC Choi, E.A.
TAX HELP TEAM (213) 248-0221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it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DAEWOO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이사 시내이사 타주이사 자동차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www.easy2424.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을 시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수업시작일: 8월 26일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256-1311 EXT. 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2세에게 가장 어려운 건 "알아서 잘~"

박영배 목사, 이민신학 심포지엄서 주제강연

이민신학 심포지엄 주제 강연에서 1.5세 사역자인 뉴라이프선교교회 박영배 목사는 "세대 간의 많은 차이 중에 언어적 차이도 크지만 문화적 차이도 상당히 크다. 이는 바로 갈등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서로를 오해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워진다"며 "그 예로 1세들은 암시적 대화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알아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2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들은 직설적인 대화법을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세 목회를 시작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심방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훗날 한 1세 권사님이 어떻게 심방도 오지 않냐고 물어오더라"고 했다.

박 목사는 "2세들은 미국에 와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사람들이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30대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가정을 꾸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탄다"며 "문제는 많은 경우, 그 다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1세들이 2세들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야 한다'는 소망은 줬는데 그것을 이룬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안 가르쳐 줬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박 목사의 강연 요약문.

나는 중학교 때에 이민 온 1.5세 사역자다. 15여 년 전에 앞으로 2세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캠퍼스 2세 사역을 시작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2세가 헌신했다. 그러나 2세를 많이 포용할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시대였다. 그때 나와 2세 목회를 시작하며 뜻을 같이 한 친구들은 전부 한국어 목회를 하고 있다. 그때는 2세 교회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했는데 반대로 1세 교회가 더 많아졌다.

차세대 목회 주제: "성경적 3세대 공존 희생과 섬김 하나님 나라의 꿈"

세대 간에 차이와 문화적 갈등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그 정체성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복음을 어떻게 후손들에게 전수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삭-야곱으로 3세대가 이어졌다. 나는 영어목회를 하다가 한어목회를 시작했다. 교회 안에 3세대가 공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보통 2세들은 아버지 세대는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 자신과 아이들을 생각한다. 그러나 성경에 3세대가 공존했던 것과 같이 부모들도 중요하다고 2세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그들이 부모들을 교회로 모시게 됐다.

한 교회에서 연령과 경험이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뉴라이프선교교회는 1세와 1.5세, 2세가 공존하는 교회를 지향한다. 제직회와 당회, 공동의회에서 2세들이 참여해 발언하는 것을 1세들이 보고 교회를 많이 떠나기도 했다.

나는 세대간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세들에게 많은 희생을 요구했다. 나는 1.5세로서 1세와 2세가 공존하는 교회를 이루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 10년 전에 다른 지역에 지교회를 개척했다. 2세들에게 설교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은 축복해 줄테니 따라가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나와 함께 하면서 가르치고 키웠던 그들을 떠나보낸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2세 선교사를 캄보디아로 파송한 이후에 줄이어 2세권 선교사들이 파송됐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른 2세권 교회와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선교지에서 연결된 사람이 백인들인데 그들과 함께 15개 교회가 연합해 현지 선교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세대가 연합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주어진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섬기자.

토마스 맹 기자

심포지엄에 나온 오상철 박사, 박희민 목사, 박영배 목사, 김영대 목사, 이상명 총장, 이석부 목사, 김영주 박사.

이 심포지엄에는 이민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100여명의 목회자와 평신도가 참석했다.

1세-1.5세-2세 서로 섬기면 복음의 능력 드러나

제4회 이민신학 심포지엄이 1부 개회예배와 2부 주제강연에 이어 진행된 패널 디스커션에 박희민 목사(나성영락교회 원로), 오상철 박사(이민신학연구소 소장), 김영대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 이상명 총장(미주장신대), 이석부 목사(세리토스알테시아연합감리교회), 김영주 박사(장신대 전임강사)가 참여했다.

한인 영성, 후대와 다민족에게 전해야

김영대 목사는 뉴욕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에서 목회한 경험을 나눴다. 김 목사는 "다민족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국인 전도사를 초빙하게 됐다. 그에게 한국 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해가 되면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사역을 하자'고 권해 동역을 하게 됐다. 그 당시 한인 1.5세와 2세,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등의 젊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며 20명에서 시작해 3년이 지나 120명 되는 교회 성장을 이뤘다"며 "앞으로 한인 1세 목회가 우리 후손들에게, 그리고 다민족 교회에 잘 전수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간격 있는 세대들 서로를 동반자적으로 인식해야

이상명 총장은 "나를 '낀 세대'로 생각하고 발표를 준비했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개척시대와 낀 세대, 낀 세대와 차세대가 공존하는 이민목회의 현실은 서로를 함께 목회의 길을 가는 길벗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종속이나 서열의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서로를 끌어 안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 결국 바다에 닿는 강물처럼 개척세대는 낀 세대에, 낀 세대는 다시 차세대 목회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목회를 해야 한다"며 "이 이민의 땅의 주역은 결국 차세대가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세계 복음화에 다민족 목회 사용하실 것

현재 다민족 목회를 하고 있는 이석부 목사는 "흔히 미국교회가 메말랐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의 경우 한국의 뜨거운 영성으로 목회를 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며 "현재 심방을 열심히 하고 있고, 소그룹, 케어링, 힐링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교회에는 백인들이 줄고 요즘은 필리핀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민족 목회를 위해서 언어를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완벽하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문화가 하나로 묶어질지 고민이 되는데 꼭 문화를 바꿀 필요는 없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이 된다"며 "영어를 완벽하게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함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다.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 영어를 듣기 위해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다민족 목회가 어려운 점도 많지만 콜링에 감사하고 앞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다민족 목회를 쓰실 줄 믿는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맹 기자

TOP MEDIA
교회설교 CD제작
성가대 및 찬양대 소규모 앨범 제작
교회에 필요한 모든 미디어용품 판매
TEL. 323-265-0244 FAX. 323-265-0250
3170 E. 11th St., Los Angeles, CA 90023
www.topmediausa.com topmediausa@yahoo.com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
도박,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료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736-6696 제시카
전화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122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THANKSGIVING CHURCH
감사한인교회
감사한인교회 2012년 임직예배
*일시: 2012년 6월 24일(주일) 오후 4시 *장소: 감사한인교회 본당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인 감사한인교회가 올해 창립 29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장로님 세 분, 안수 집사님 열 한 분
그리고 권사님 20 분의 새 일꾼을 세우고 임직예배르 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어 귀한 분들을 특별히 초청합니다.
참석하여 주셔서 은혜에 동참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에 맡기신 사역을 함께 지고 갈 귀한 임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 김영길
2012년도 임직 및 취임대상자
〈장 로〉
노준종 집사 안도성 집사 양규원 집사 이상 3명
〈안수집사〉
강재연 집사 김경호 집사 김동원 집사 김용훈 집사
김주환 집사 박현국 집사 석 완 집사 윤철현 집사
조규민 집사 황연오 집사 유요한 전입안수집사
이상 11명
〈권 사〉
곽경점 집사 김광이 집사 김미니 집사 김선희 집사
김수란 집사 김애련 집사 김영순 집사 김은경 집사
김현순 집사 노부영 집사 명정애 집사 문이례 집사
신효자 집사 유혜숙 집사 이미영 집사 이영희 집사
이은진 집사 한영자 집사 한재경 집사 홍미란 집사
이상 20명
THANKSGIVING CHURCH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300인목사단 "북한 문제가 우리 문제"

기금 모금 만찬에서 북한 인권 문제 놓고 교계 지도자들 의기투합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한 기금 모금 만찬에 참석한 목회자들이 북한 구원과 인권 회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 1면으로부터 계속 송정명 목사는 "전 LA 총영사였던 김영배 교수(호서대)가 러시아 공사관에서 근무 당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담은 책을 냈다. 이 책에서는 '정치범수용소에서 크리스천은 죽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살아야 한다. 고개를 들면 바로 총살해도 무관하다'는 내용이 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돌본 사람은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사마리아인이다. 여러분들도 북한에 있는 그들의 일을 내 형제, 자매의 일이라 여기고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박희민 목사는 "지금 북한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갖가지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중국에 사는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인정받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4부 시간에서 손인식 목사는 오는 8월에 있을 제1차 크리스천 북한포럼에 대해서 소개했다.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베델한인교회에서 열리는 이 집회에는 주강사로 북한인권의 대명사 수잔 숄티 여사, 샘 브라운백 캔사스 주지사, 에드 로이스 하원의원, 이동복 북한민주화포럼 대표 등 쟁쟁한 인물들이 참여한다. 각종 강연과 포럼, 기도와 간증 순서가 있다.

손 목사는 "독일이 통일되기 전 동독의 크리스천들에게 갖은 인권유린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라이프찌히에 모여 거리행진을 통해 세계에 그들의 소리를 알렸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미국도 남부에서 흑인 모임이 워싱턴DC까지 올라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중심으로 20만 명이 모여 집회를 가졌다. 그후로 흑인이 대통령까지 되는 시대가 열렸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다.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사무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오는 8월 함께 모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역설했다.

박성근 목사는 〈탈북자 인권을 위해 미주 한인교회가 할 일〉이라는 주제로 "오늘날 교회나 개인들이 내 자신에 대한 책임에는 충실하지만, 다른 이의 아픔에는 이기심으로 눈 감는 것이 이 시대의 문제다. 바른 헌신을 통해 탈북자들의 인권 신장에 기여하는 미주한인교회 되길 바란다"고 간청했다.

이후 기도시간에는 남성수 목사가 "디아스포라 600만 한인교인들이 하나되어 한 목소리로 힘을 모아 중국정부를 움직여 30만명의 탈북자들이 강제북송이 중지될 수 있도록, 북한 땅이 통일이 되어서 그들이 자유를 찾을 수 있도록" 기도를 인도했다.

진유철 목사는 "탈북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도록, 이 모임이 작은 불꽃이 되어 더 큰 후원과 기도의 불길이 되도록" 기도했다.

빅터 박 기자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한 펀드레이징 콘서트 성황리에

이 콘서트에는 바리톤 나건용, 소프라노 최정원, 테너 김성욱, 피아니스트 강지현 등 쟁쟁한 연주자들이 참여했다.

해외300인목사단(공동대표 박희민, 이원상, 송정명, 손인식, 김인식 목사) 주최로 지난 16일 저녁 7시 베델한인교회에서 탈북자 북송 반대를 위한 펀드레이징 콘서트가 성황리에 열렸다.

콘서트에 참여한 이들은 소프라노 최정원, 테너 김성욱, 바리톤 나건용, 피아노 강지현 씨로 이들은 이번 콘서트에 자비량으로 왔을 뿐 아니라 북한 인권 운동을 돕고자 노개런티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연엔 청중 1500여명이 참석해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됐고, 탈북자들을 돕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헌금했다.

한편, 해외300인목사단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베델한인교회(손인식 목사)에서 제1차 크리스천 북한포럼 및 통곡기도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포럼은 각종 강연과 간증, 공연과 기도 순서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유투브 스타'인 호주 한인 쌍둥이 자매 Jayesslee(제이에스 리)의 음악 공연도 있을 예정이다.

빅터 박 기자

"그저 할 일 했을 뿐인데" 美 대통령 사회봉사상의 영예

이모세 목사가 오바마 대통령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미국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모세 목사(총회장)가 미 대통령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이 목사는 "지난 10여년 간 한인 홈리스들과 마약·도박 중독자들을 섬기고 어려운 갈등을 겪는 가정을 도와 준 공로를 인정받았다"며 "목회자로서, 또 시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 상을 받게 되어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 사회 속에서 더 열심히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라는 뜻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모세 목사는 LA 한인타운 내에 월드타운교회와 월드타운 기도원, 월드크리스천대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문의)213-382-3258 빅터 박 기자

FBM 결혼예비학교 강사스쿨 열려

결혼예비학교 사역을 준비하는 섬김이들을 위한 강의가 이뤄지고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정사역기관인 '가정을 세우는 사람들(Family Builders Ministry, FBM)'에서 18일 결혼예비학교 강사스쿨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미주두란노서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세미나에는 〈결혼이 늦어지는 12가지 이유〉를 비롯해 〈연애공식〉, 〈부부행복공식〉, 〈건강한 홀로서기〉 등 다수의 저서를 번역 출간해 잘 알려진 금병달 목사·금정진 사모가 강사로 나섰다.

이 세미나에서는 ▲결혼이 늦어지는 12가지 이유 ▲커플 친밀감 증진 방법 ▲남녀 차이 이해와 성적 정체성 확립 ▲아름다운 만남을 위한 배우자 선택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지 85% 예측이 가능한 커플관계 진단과 상담방법도 소개됐다.

정한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친철하게 웃음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굿모닝 보험 213.761.9990
24hr 한국어 서비스 KEVIN YOO
355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암 치료의 희소식
"대통령 각하 암을 정복했습니다." 외 다수의 저자
스페인에서 수술않고 한방으로만 암치료로 유명한
한동규 박사님의 미국 연락처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연락처 : 임마누엘선교회
T. 213-235-5800
213-252-9036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천연한약재료 증상별 조제 처방 감기약 $20~$30선 가능
여행자보험/ 건강보험/ 교통사고 (스마트폰 검색가능)
323-735-6365
3130 W. Olympic Blvd, Suit 380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하바드)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그렉 (Greg) 직통: 213.278.5927 Office: 323.556.5386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쇼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지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어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율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I-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www.LAORT.edu
•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 New York : Forest Hills Tel. 718.261.5800
• Chicago : Skokie Tel. 847.324.5588
약도 Bus 20번 ORT Lajolla Fairfax 맥도널드 Wilshire

"백 투 스쿨" 돕는 LASR 대안학교

LA사랑의교회가 설립… 탈학교 청소년에게 교육 제공

지난 15일 LASR 공립 대안학교가 제3회 졸업생 20여명을 배출했다.

"제 인생에 있어 고교 졸업은 큰 성취입니다. 이제 제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 단지 첫 발짝을 내딛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압니다."

"제게 있어 졸업은 마치 어려운 퍼즐 게임 가운데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킨 듯한 느낌입니다."

LASR 공립 대안학교 교사들. 가장 왼쪽이 이재용 교장이다.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16세~24세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LASR 공립대안학교가 올해로 제 3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지난 15일 고교 졸업장을 거머쥔 20여명의 졸업생들은 저마다 눈물겨운 환경 가운데서도 꿋꿋이 버티고 학업을 완성한 성취감에 들뜬 축제 분위기였다. 고교 졸업장을 받음으로써 이제 이들은 사회를 향해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단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LASR 대안학교는 2009년 2월 LA사랑의교회가 의사소통의 어려움이나 적응문제로 인해 제때 고교과정을 마치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한 탈학교 청소년들의 학교 복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공립 청소년 대안학교다. 한인교회가 이뤄낸 교육계의 첫 열매이기도 하다.

LASR 이재용 교장은 "한국과 미국은 학제가 달라, 한국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미국에 온 경우라도 만18세가 넘으면 미국 공립학교에는 입학이 허가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때 잘못된 선택으로 학교를 중단했거나 가정 형편에 맞지 않는 비싼 수업료 때문에 사립학교로도 진학하지 못한 한인 청소년들은 결국 고등학교 졸업장도 취득하지 못한 채 타운 내에서 저임금 일자리에 매이는 등 미래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극히 제한되게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한 청소년들에게는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거래나 갱 조직이 현실적인 대안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면서 "소외된 청소년들을 돌봄으로써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졸업생들을 대표해 연설을 한 알제리 라라 로페즈 학생은 자신의 가문에서는 그야말로 첫 고교 졸업장을 받아든 가문의 신화를 이뤄냈다. 알제리의 집안에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 누구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가 여지껏 없었기 때문이다.

알제리는 "불과 몇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결여와 부정적 가치관에 지배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대안학교를 다니는 동안 두려움과 마음 속의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자신감을 얻게 됐고, 무엇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맞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교장에 따르면, 히스패닉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오기까지 버스를 6번이나 갈아타고 오는 학생도 있고, 가족 구성원이 갱이나 마약 집단에 연루된 경우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협박 당하는 학생들도 있다.

고교 학령기를 놓친 이들 히스패닉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를 다닌다는 것은 그야말로 매일 매일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의 연속이다.

LASR 대안학교는 16, 17세에 공부를 그만두고 21세에 '백 투 스쿨'한, 이미 성인이 되어버린 이들을 훈련하고 가르쳐서 고등검정고시(GED)를 치르게 한다. 매년 70여명~100여명의 청소년들이 등록하고, 이 가운데 25%가 이 시험에 패스한다. 한인 학생이 전교생의 30%를 차지하고, 히스패닉이 60-70%를 차지한다.

이 교장은 "한인 청소년 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중국인 등 타인종 2세들도 많이 찾고 있을 정도로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일대일 교육의 책무성에 있어 기존의 어덜트스쿨이나 다른 컨티뉴잉스쿨과는 차별화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실 미국에도 이런 대안학교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하지만 학생이 독립적으로 공부하는 훈련이 안돼 학업이 어려운 것"이라며 "교사의 적극적인 동기부여와 관심, 책임교육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주려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아이들한테 사랑이 많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고 격려하고, 수업에 안 나온 학생이 있으면 찾아가 격려해서 데려오는 보살핌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아이비리그 대학을 가는 한인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반은 그렇지 않다. 그 나머지 반에게도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한나 기자

결혼, 가장 아름다운 만남으로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제니퍼 리 LA 지사장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왜냐면 부모를 떠나 독립된 인생이 시작되는 동시에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단어 앞에 신중해지는 것이 아닌가 싶다.

기독교인이 결혼의 문제를 대할 때 세상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도함으로 믿음의 동역자를 구할 수 있고,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평생의 반려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미주 듀오 대표 제니퍼 리 커플 매니저는 "짝을 맺어주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13년 전에 LA에서 결혼정보회사를 시작한 그녀를 만나봤다.

-미국에서 듀오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LA의 많은 한인, 유학생들이 배우자를 만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다. 뉴욕에는 2년 전에 오픈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해 배우자를 찾고 있다. 그만큼 바쁜 이민사회에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요즘 결혼의 경향은 어떠한가.

요즘은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 결혼을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또 이혼하는 풍조에 따라 재혼하는 비율도 늘어났다. 재혼자를 구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도 많다. 혼자 살게 되면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기가 쉽다.

남자와 여자는 같이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돕는 배필인 하와를 지으셨다. 결혼은 성경적이다.

-매년 이벤트 행사를 열고 있다고 들었다.

매년 여러차례 개최하고 있다. 쿠킹 이벤트, 크리스마스, 2030·4050 이벤트 등 1년에 서너 차례 열린다. 이번에 2030 이벤트 행사가 6월 22일에 열린다. 버뱅크 캐스트웨이에서 1.5세와 2세를 대상으로 하와이풍으로 열리며, 각자 자기 장기를 뽐낼 수 있도록 열린 음악회처럼 악기 연주도 펼친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친교를 나누고 게임도 하면서 보낸다.

-결혼적령기 청년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찾길 쑥스러워 하지 않나.

그래서 중요한 것이 중간 역할이다. 부모나 가족이 중간에서 압박해서 적극적으로 짝을 찾도록 도와야 한다. 직장에서 워낙 바쁘고 살기 빠듯하다 보니 여유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민사회의 대표적 공동체인 교회에서도 짝을 만나는 확률이 8%에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모들이 기도하면서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우리도 아침마다 회원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좋은 인연을 달라고 기도한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좋은 만남은 듀오에서 가질 수 있지만 좋은 결혼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이 필요하다. 가정을 이루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재혼의 경우, 마음 속의 상처를 치유받고 결혼을 준비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결혼정보회사 '듀오'는?

1995년 설립된 한국 최대의 결혼정보회사 중 하나로 건전한 결혼 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가고 있다. 미주지사는 2000년에 설립됐으며 지금은 미주 전 지역의 각계각층의 회원들이 가입돼 한인들의 소중한 만남을 이어주고 있다.

토마스 맹 기자

김동호 목사 초청 부흥회 6월 24일-26일

하늘 뜻, 이 땅에

24일 오후 5시 "자녀의 권세" 요1:12-13
25일 새벽 5시 30분 "좋은 제자" 눅 5:1-11
25일 저녁 7시 30분 "천국의 사고방식" 마 20:1-16
26일 새벽 5시 30분 "사랑과 책임" 마 5:38-48
26일 저녁 7시 30분 "세가지 시험" 마 4:1-11

www.calvaryfaithchurch.com
www.facebook.com/calvaryfaithchurch

KPCA

갈보리 믿음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3300 Wilchire Blvd. L.A. CA 90010 TEL. 213-365-8880

공력의 심판 날에

고린도전서 3:10-15

장 재 효
서울 성은교회 목사

고전 3: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찌니라 11 이 닦아 둔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12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힘쓰고 공들여 놓은 것을 공력(功力)이라 합니다. 이 공력이 심판 날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동양과 서양의 문물이 교차하는 곳으로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무역이 성행하고 항구도시이다 보니 온갖 미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많고 음란 방탕하고 타락한 죄악의 도성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자기 생활여건이 어려움이 없고 여유 있는 생활인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신앙이 영적인 내세소망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육신의 세상 조건으로 교회 분위기를 휩쓸거나 자기 존재를 의식시키려는 폐단이 많았습니다. 자기를 돋보이게 하고 싶어 분위기를 유도하지만 자기 혼자서는 잘 안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인맥을 형성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는 예수파라고 하면서 파당을 지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1. 심판 날에 나타날 공력- 맡겨진 소임에 충실

교회는 죄인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거듭날 때 성령님이 오셔서 인치심으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보증을 하시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라에 더 많은 영혼이 들어가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 받는 영적 체질 신앙을 가꾸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교회였고 성령님이 실망하시는 교회였습니다. 파당을 지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폐단이 있었다는 것은 교회의 망조입니다.

고린도전서3:1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말씀은 3장 편지 모두에 전제하는 서술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에 따르면, 고린도 교회를 보는 사도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체질 신앙이 아니라 육에 속한 상태로 아직도 죄인 그대로 교회만 들락거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망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애쓰지 아니하고 자기 설 자리를 만들고 행세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며, 교회 분위기를 자기가 좌지우지 하려고 하니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돈도 뿌리고 선물도 사주며 자기 파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휩쓸리는 영혼도 천국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골적으로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다 너희 믿음이 신령한 믿음이 아니고 육에 속한 상태,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같이 하노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로 취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고전 3:2)고 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고전3:3)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곧 육신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4절에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이처럼 파당을 짓는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나 바울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그 위에 아볼로는 물을 주면서 빨리 생명의 싹이 나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지켜보며 가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싹이 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온전히 성령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은 지옥 갈 영혼이 천국가기 위한 목적뿐이어야 합니다.

그간에 많은 교역자들이 교회사역을 보조하기 위하여 오기도 하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당회장 한 사람이고 그 외에는 보조교역자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교구 단위로 교역을 맡아 감당할 때에 열심히 물을 주고 싹이 나게 해서 그 싹이 자라고 결실하도록 열매를 맺어 하늘나라 들어가도록 애씁니다. 그러나 어느 교역자라도 누구든지 하나님과 양떼인 여러분 사이에 자기라는 것이 끼어서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양떼를 예수님께 직결시켜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되 깊게 알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분과 연합해서 그 분의 나라인 하늘나라에 성령으로 인도받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당회장이고 목자라 해도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중매장이 역할 외엔 없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을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신랑된 예수께 중매하는 중매장이라 했습니다. 중매는 신랑감 신부감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도록 소개시켜서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여러 가지로 기대가 넘쳐서 부부가 되어 짝을 이루고 가정을 만들도록 하는 것인데 중매장이가 그 중간에 계속 끼어 있다면 도움이 안되고 훼방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릴 때는 어머님 품에 맴돌고 어머니 품에서 벗어나면 죽을 것만 같았는데 조금 더 자라게 되면 어머니 품을 떠나서 유치원도 다니고 학교도 다닙니다. 좀 더 자라서는 이성에 눈을 뜨고 짝을 찾느라고 연애할 때에는 왠지 부모님이 부담스럽고 장애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관계원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목자에게 데려다 맡기신 것은 목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영적 표현으로 영원한 신랑 되실 예수님께 중매하라고 목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수준급 이상으로 성숙되면 목자가 없어도 자기 혼자 기도, 봉사, 전도, 구제도 하고 예수님을 아주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중매자들은 죄인이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과 연합했으면 옆에 물러나 그 구원 얻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 기대가 새로워져서 더 알뜰한 관심으로 세밀히 보살펴 주시고 예수님 나라에 더 요긴하게 쓰임 받도록 옆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들과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찌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은교회는 39년전 5월 17일 옥수동에서 골방 하나 얻어서 시작했습니다. 삼각산에 가서 며칠 단식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우리 내외 둘이서 시작한 교회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신 백성을 불러내시어 목자에게 책임지워 맡기신 것입니다. 이 영혼을 진리를 깨닫게 하고 성령으로 회개하며 거듭나게 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된 결실로 하늘나라에 들여보내야 한다는 책임을 맡기신 것입니다.

2. 심판 날에 나타날 공력- 그리스도의 심장 소유

이 책임 목회라는 중심에는 그리스도 심장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이 목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애를 쓰며 가르쳐도 세상 떠날 때 하늘나라 들어 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천국에 가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런지 하나님은 구분을 지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3:15에 보면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위에 세워진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세워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할 때 예수님 터 위에 자기 믿음을 가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13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합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자기가 힘들이고 공들여서 만들어 온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때 불에 타지 아니할 보석이 있고 불에 금방 타버리고 재가 되어 금방 흩어지고 말 나무, 풀, 짚으로 세우는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중간 심판 때에 받게 되는 것인데 그날에 나무나 풀, 짚처럼 활활 타버리고 재는 바람에 흩어지고 나면 흔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헛수고한 신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아무리 불로 태워도 타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영원불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고 변치 않으시는 분이고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자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영원불변 무한한 존재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같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생활을 시작해 예수님 품에 들어갈 그때까지 영원불변한 공적을 쌓아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때에 공력이 계속 빛나는 내 입장을 대변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었고 회개도 했고 구원도 얻었다고 하지만 그 인생이 공력을 나무나 풀이나 짚 같은 것으로 대충 쌓고 다른 데에 목적을 두고 살며 체면을 위해 하나님을 적당히 섬기고 교인들과의 교제도 적당히 하는 풍조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가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1992년도부터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못된 짓을 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열성이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 내어 재산을 다 기증하게 하고 남의 재산을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들이 예수님을 믿되 부담없이 적당하게 믿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내리막길로 갔습니다. 부담없이 적당하게 교회 생활했다는 것은 풀이나 짚으로 쌓은 공적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자격으로 주님을 맞을 수 있을까, 자신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공적이 영원히 남아 있게 하기 위한 가장 보람되고 알찬 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직책들을 잘 감당하심으로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성령의 하나됨을 따라 타 없어질 것이 아닌 금이나 은이나 보석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공적 쌓기에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10분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크리스천투데이	7면 설교		동영상 설교 / 인터넷 설교	
경북기독신문	3면 설교		기도원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3시반 / 동부 오후6시반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토요일	서부 오후6시 / 동부 오후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기독일보	5면 설교문	온라인 칼럼설교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20분~11시50분			오프라인 칼럼설교	인터넷신문 설교문

**성은교회 당회장. 성은동산 원장. 예장증경 총회장. 바른목회연구원 원장.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초대 총장.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총재. 선목회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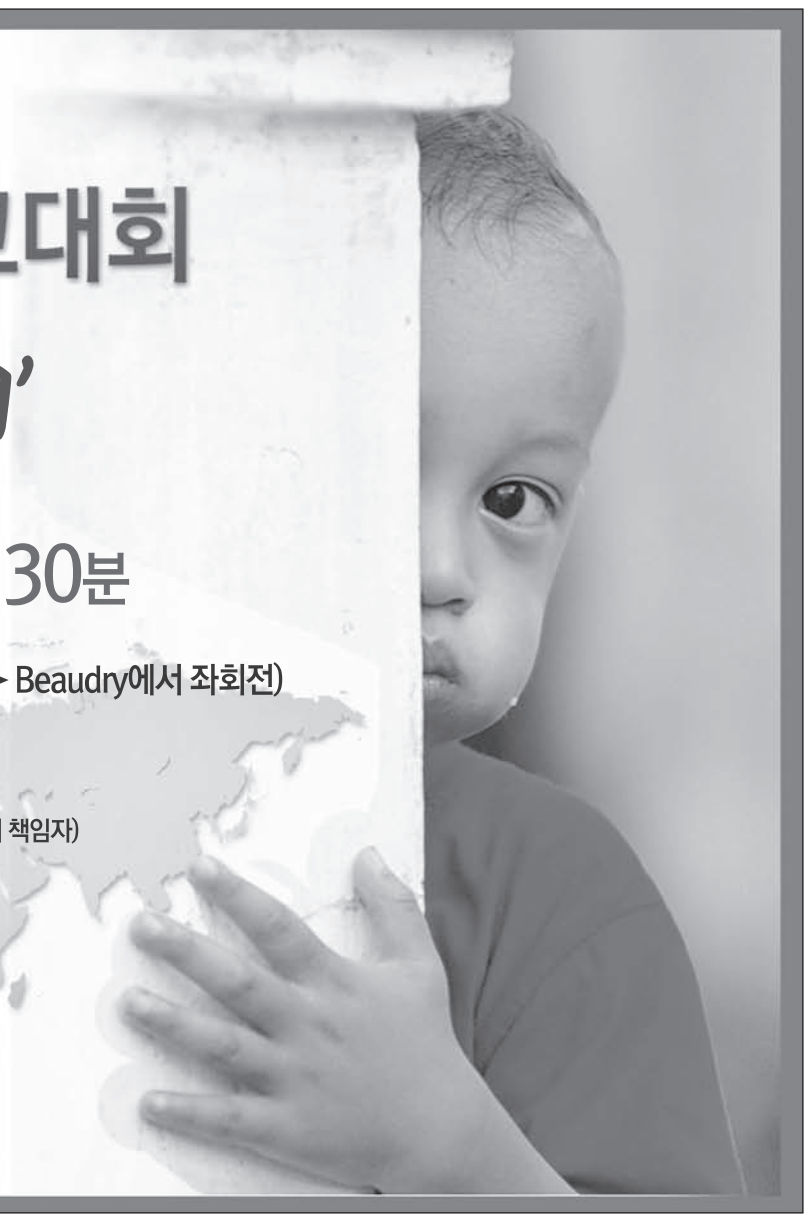
You Tube로 지구촌 어디서든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 시청 가능함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TEL. 02) 420-3351~3 / HP. 011-222-5591

최후의 미개척지, 마지막 미전도 종족. 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미전도 미개척 종족 세계선교대회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세대에'



2012년 7월 9일(월),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장소 LA사랑의교회 (한인타운 → Beverly(1가)Blvd. → 다운타운 방향 직진 → Beaudry에서 좌회전)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el. 213.975.1111

강사 Paul Eshellman (CCC 세계복음화사역 책임자)
안강희 (FTT코디네이터, KWMC 미전도종족 선교책임자, 로잔 위원회 위원, 전 예수 영화 본부 아시아, 남미 책임자)

등록 등록비는 받지 않습니다. 단, 반드시 참석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목사 949-231-2872 또는 LAsarang@gmail.com)

주관 GAP (Global Partners Assistance 세계협력선교회),
FTT (Finishing the Task 미전도 종족 개척 운동 본부)

주최 LA사랑의교회 LA Sa-Rang Community Church www.LAsarang.com

매주 수요일 GBC목회자도서관에서는?

유명 강사 초청한 다양한 세미나로 정보 교환

얼마 전 개관한 GBC남가주목회자도서관(관장 오상철 목사). 누구에게나 개방된 이 도서관에서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특별한 모임이 열린다. 목회자들에게 유용한 목회정보를 제공하는 세미나가 열리는 것이다.

지난 13일에는 "내 인생의 하프타임"이란 주제로 하프타임코리아 대표 박호근 목사가 초청됐다. 박 목사는 이 세미나에서 하프타임코리아의 사역을 소개했다.

하프타임은 스포츠에서 전반과 후반 사이에 있는 시간이다. 하프타임은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갖고 인생의 후반부를 미리 준비하는 휴지기이고, 현실로부터 도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다. 크리스천들에게도 자신의 전반부 인생을 돌아 보고, 후반부 인생을 계획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가 밥 포드의 하프타임이란 서적에서 응용해 낸 이 프로그램은 한 번의 세미나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결심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GBC목회자 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목회에 유용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신의 정체성, 방향성, 사명의 회복에 있다. 프로그램은 예배와 영상, 강의, 진단 프로그램, 소그룹 모임과 인생사명서 선언 등으로 구성되며 평신도 코스부터, 목회자, 강사 코스까지 있다.

박 목사는 "크리스천들은 후반전에 강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후반에서 큰일을 했다"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 전업주부는 찬양의 달란트를 발견해 지금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다"고 간증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일 수요일엔 이필찬 교수(前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 요한계시록 강해 저자)가 요한계시록 4장을 강의하기도 했다.

빅터 박 기자

방주교회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급식

방주교회가 커뮤니티 기업들과 함께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 그리고 사랑을 나누었다.

방주교회(담임 김영규 목사)를 비롯해 자바시장 업체와 한미은행이 힘을 모아 한인 노인들을 위한 '사랑의 무료 급식행사'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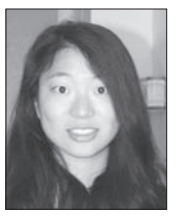
이 행사는 방주교회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해 온 것으로, 14일 오전에는 피코와 버몬트 인근 필그림교회(1233 Vermont Ave.)에서 한인 노인 2백여명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경비회사 퍼스트 패트롤(조갑제 사장)이 점심식사를 제공했으며, 방주교회 교인들과 한미은행 직원들이 배식과 진행을 도왔다. 한미은행 측은 지난 3월 한미 네이버 자원봉사 프로그램(Hanmi Neighbor Volunteer Service Program)을 발족시킨 이후 행원들에게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설 것을 장려하고 있다.

정한나 기자

섬기고 희생할 때 기쁨과 행복 솟아나

노인들 대상 찬송가 암송대회 기획한 오전도 양

양로병원의 어르신들이 찬송가를 암송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오전도 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찬송가를 암송함으로 은혜를 받고 삶의 소망을 얻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도 뿌듯하고 마음 속 깊은 곳에서 기쁨이 넘칩니다."

10여년째 양로병원 노인들을 위한 봉사를 자원해 온 오전도 양의 고백이다. 장애우사랑교회의 오진형 목사가 그녀의 아버지다. 오 양은 장애우사랑교회를 세운 아버지를 도와 어려서부터 장애인들을 섬겨 왔다.

목회자 자녀로서 넉넉치 않은 가정 환경 가운데, 친구들과 비교하며 때론 괴로움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오 양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나누고 희생할 때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솟아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한 그의 깨달음이 수년째 봉사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엔 중앙양로병원에서 오 양이 기획한 '할머니·할아버지들을 위한 찬송가 경연대회'가 열렸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치매에서 벗어나고 외로움을 극복하도록 매일 찬송가를 암송함으로써 할 일이 있다는 소망을 드리기 위해 찬양대회를 기획해 진행해 왔다"는 그는, 최근 UC버클리대 경제학과에 합격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오 양은 앞으로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해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제3세계 비지니스를 희망하는 이들을 카운슬링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한나 기자

베데스다대 뮤지컬과 "두 제자" 공연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진유철 목사) 음악대학(학과장 에스더 조 교수) 뮤지컬과에서 준비한 뮤지컬 '두 제자' 공연이 지난 6월 15일(금) 오후 7시에 본 대학교 Grace Hall에서 있었다.

이 뮤지컬은 4명의 연기자, 3명의 앙상블 등 최소의 인원이 최적의 미디어 음향과 조명만으로 이뤄내 더욱 큰 의미가 있었다.

공연 동안 연기자들의 집중력과 수준 높은 연기는 청중들을 몰입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유다의 인물 성격 묘사와 상황을 재해석해 작품성을 높인 감동적인 작품이었다.

현재 이 대학의 뮤지컬과에서 수강하는 학생들은 5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 모두가 앞으로 문화사역에 큰 비전이 있어 이 과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도교수 송규식 목사는 그들 모두가 졸업 후 문화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선교와 해외선교 등 실질적인 사역에 능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다. 이 작품은 학생들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했을 뿐 아니라 연기와 춤, 노래 등 다양한 분야를 모두 직접 경험하게 하는 데에 교육적 목표도 갖고 있었다.

한편, 이들은 6월 20일 수요일 오후 7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앵콜 공연을 열어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선사했다.

한주연 기자

커뮤니티 섬김 무료 건축 라이센스 수업

베델건축학교가 커뮤니티 서비스 차원에서 건축 라이센스 취득을 돕는 강좌를 무료로 개설한다.

6월 24일 주일 오후 3시부터 8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30년 경험에 현재도 컨트랙터로 재직 중인 전문가가 강사로 선다. 강사는 미주베델교회 전도사이자 알래스카 선교사를 역임한 배기문 전도사이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미주베델교회 정요한 담임목사는 "가정 집 수리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직업으로 갖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초대한다"면서 "특히 선교지에서 이 사역을 하려는 분이 있다면 대환영"이라 전했다.

이 강좌에서는 미국 건축물 구조 및 건축 도면 보는 방법, 플러밍 응급조치와 수리 방법, 전기 시설 설치 및 수리 방법, 가정집에서 응급으로 알아야 할 사항 등을 가르쳐 준다.

문의) 15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213-422-9191

한주연 기자

예일한인교회 김기연 장로 초청 부흥회

예일한인교회(박은종 목사)가 지난 14일부터 4일간 대전영광기도원 원장인 김기연 장로를 초청해 심령부흥회를 개최했다.

매일 저녁 7시 30분, 새벽 5시 30분과 주일예배시 진행된 부흥회 중 14일 저녁 집회 때 김기연 장로는 사무엘상 7장을 본문으로 "사무엘 선지자의 미스바 성회"라는 말씀을 전했다.

김 장로는 대전영광기도원 원장으로 어린 나이에 성령충만을 체험하고 16세 때부터 노방전도를 통해 은혜를 실천해 왔다.

장로가 된 후 대전영광기도원과 대전영광교회를 세우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성령의 역사도 체험했다. 이외에도 해외에 목회자들을 섬기고 있다.

한편, 교회측은 "김 장로가 오는 8월 한차례 더 방문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빅터 박 기자

하나님의꿈의교회 창립 6주년 및 목사안수식

라크리센터 하나님의꿈의교회(권태산 목사)는 개척 6년을 맞아 감사예배 및 브라이언 최 전도사의 목사안수식을 24일 오후 5시에 드린다.

1.5세 젊은이들로 시작된 이 교회는 어린이들부터 노년세대까지 함께 하는 성숙한 교회로 성장했다.

주소) 6235 Honolulu Ave.
La Crescenta, CA91214
문의) 213-820-7646
www.goddreamcenter.com

빅터 박 기자

온누리침례교회
All Nations Baptist Church

담임목사 청빙

온누리침례교회 3대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저희 온누리침례교회는 텍사스 알링턴(Arlington)에 위치한 15년 전통의 한인교회입니다. 100여명의 성도들이 함께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제3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자격

1. 침례교단 목사안수자
2. 연령 : 만 40세 이상
3. 영어회화 가능자
4.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차 서류면접 – 제출사항

1. 이력서 및 가족사진 포함
2. 자기소개서 (성장과정,가정배경,구원확신계기,목회자로 부르심 등)
3. 사역소명서 (사역가치관 및 비전, 목회 철학)
4. 최근 설교녹음 1회분 (MP3)

>>제출기간 : 2012년 7월 6일 밤 12시까지

★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전자메일(E · mail)로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메일 주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anbc2412@gmail.com
(1차 합격자는 차후 개인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에 e · mail로 연락해주세요.)

● 홈페이지 : www.onnurich.us
● 교회주소 : 2412 S. Bowen Rd., Arlington, TX 76015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 사업체 비영리단체 설립 해산 및 장부정리(Quickbook)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방법
• 크레딧카드 빚, 부동산관련 세금문제해결(1099-C)
• 저소득층 세금환급(EITC)
• Payroll & Sales Tax 보고(Paycheck service)
• IRS,SBOE,EDD,FTB세금문제해결(Levy & OIC)
• ITIN(개인 납세번호)신청 및 공증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이정운 CPA

Tel (213)387-2004
Email상담환영 : chungleecpa@hotmail.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토요일10 am-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31년 전통의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Father's Day 보은세일

Made in USA
한 병은 2-3개월분 / 7병은 1년 6개월분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 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 자신있게 권합니다 !

프로모션 선택 패키지

8병을 100불
(알파 2병까지 섞음) 총 280불 소매가격 +tax

각종 질병 질환에 이미 검증된 오리지널 구연산

30불/ea + tax
Kosher Approved
Organic/8온스(226그램)

(6월16일까지)

7병을 100불
(알파 3병 섞음) 총 270불 소매가격 +tax

각종 위장병에 특히 좋은 알파 구연산!!

50불/ea + tax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척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싸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춰주는데 획기적이다.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트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약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혈액을 약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약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늘 피곤하던 몸이 가뿐해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뚝뚝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혈압 2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올랐는데 구연산이 낫게했다.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대상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르니 나음.
★비염,콧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니까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나물을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혀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쌀이나 야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이부영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치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간판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탱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가며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쉬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융연구소 수료
융학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비디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막힌 체험사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해 주세요.

(올림픽과크렌셔 북동쪽 코너 단층 상가건물)

HQ Health, Inc. / HQ 산삼
4125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LA본점으로 연락바람
월-금: 10am-7pm, 토:10am-5pm

얼리헤드스타트 & 무료 차일드케어 혜택
한인들에게 신분 관계 없이 "활짝"

한인타운 내 C.I.I.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해

연방정부 및 주정부 지원으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돌볼 수 있는 무료 차일드케어 프로그램이 있어 화제다. 현재 CII(Children's Institute Inc.)에서 제공하는 0세에서 3세까지의 신생아 및 유아, 그리고 임신부가 있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 발달을 돕는 얼리헤드스타트(Early Head Start) 프로그램과 6주에서 5살 미만의 아동들을 돌봐주는 무료 차일드케어 서비스가 바로 그것이다.

얼리헤드스타트 가정반 프로그램의 경우, 체류 신분과 자격에 상관없이 서류 신청만 하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1590불, 4인 가족 1920불, 5인 가족 2250불 이하인 경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동발달 전문가 선생님이 집으로 직접 방문하여 부모교육과 자녀의 발달을 위한 놀이를 통하여 아이가 건강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수별 기준 소득 이상인 가정도 자리가 있을 경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건강, 아동발달 및 유아교육 부문 전문가들에 의해 아동 개개인이 지적·사회적·감성적 성장에 필요한 케어를 받는다. 이러한 교육적 케어 뿐만 아니라 아동 연령에 따라 신체, 영양, 발달 검사 등을 통해, 어떠한 부분의 문제가 있는지 초기에 발견해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 가정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얼리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0살에서 3살까지의 어린이가 있는 가정뿐만 아니라 출산 전의 임신부에게 출산 정보를 제공해 준다. 즉, 영유아 혹은 임신부에게 필요한 서비스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얼리 헤드스타트의 혜택을 받은 아동들은 사고력 및 인식력 향상과 더불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사회 적응력과 감수성 발달 면에 있어서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들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얼리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은 필수적이다. CII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한인 가정들을 섬기고 있다. (상기 사진의 어린이들은 본 프로그램의 수혜 여부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한인타운 7가와 뉴햄프셔에 위치한 CII의 박현선 수퍼바이저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인들이 정보를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며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는 수혜 아동의 35%가 한인이다.

무료차일드케어 서비스의 경우, 3인 가족 기준 월소득 1949불, 4인 가족 2160불, 5인 가족 2500불 이하인 경우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 소득 이상인 경우는 소득 비율에 따라 1일 2불에서 17불 이하의 소정의 비용만 내면 된다. 현재 이 서비스의 수혜 아동 인구의 25%가 한인이다.

CII 채효신 케어코디네이터에 따르면, "보통 이 서비스 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 후 6개월에서 길게는 1,2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서류만 준비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차일드케어서비스는 CII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차일드 케어 센터, 주정부 프리스쿨, 일반 페밀리 차일드케어 홈에서 이뤄진다. 이 차일드케어서비스도 신분에 상관 없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이밖에 CII에서는 다양한 토요일 프로그램(태권도, 미술, 음악, 읽고 쓰기, 기초 산수 배우기 등), ESL 수업, 정신건강 서비스, 행동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룹 교실 및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신분에 상관없이 각 프로그램의 자격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등록이 가능하다.

얼리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5100 (Ext 1840, 1120, 1617)로 하면 된다. 무료차일드케어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213) 385-5100 (Ext 1838)로 하면 된다.

정한나 기자

LA 한인타운 7가와 뉴햄프셔에 위치한 CII 스탭들. 사진 앞줄 왼쪽이 CII 채효신 케어코디네이터

성경으로 돌아가는
보수 신학의 전당되고파

칼빈성서신학대학교 김복진 학장

칼빈성서신학대학원의 2대 학장 김복진 목사

칼빈성서신학대학교는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지켜온 미주예장 합동 소속 신학교다. 이 학교는 얼마 전 1회 졸업생이며 교무과장을 역임한 김복진 목사를 2대 학장으로 내정했다. 김복진 학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신학교가 많지만 진짜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 학교를 외형적으로 키우고 더 나아가 한국에도 대학을 세워 개혁신학을 전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복진 학장과의 일문일답.

-학교 소개를 부탁합니다.

칼빈신학대학은 초대 김진수 학장이 현재 위치에 24년 전인 1987년에 개교한 미주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소속 개혁주의 신학교입니다.

이 대학은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사상에 근거해 지금까지 개혁주의 보수신학을 지켜 오고 있습니다. 대학원장으로 김명도 목사, 이사장으로 김여진 목사가 재임하고 있으며, 구약신학에 이창배 목사 외 15명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탄탄한 버팀목이 되어 목회자와 사역자 및 선교사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위 과정은 학부는 신학사, 기독교교육학사, 기독교음악학사 과정이 있으며 대학원은 기독교교육학석사, 목회학석사, 선교학석사, 교회음악석사, 신학석사 과정이 있고, 박사 과정은 선교학박사, 목회학박사, 신학박사, 기독교교육학 박사, 성서철학박사 등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러시아, 남미, 캐나다, 중국 등지에서 거주 지역의 환경과 지역특성상 신학교를 선택하기 어려운 많은 학생들이 통신과정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제도를 체계화해서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줄 계획이 있습니다.

-학교 부설로 성경교육훈련원을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학교 쪽으로 방향을 옮긴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 보고 상담을 하면서 목회보다는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됐죠.

사실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합니다. 개혁신학이라는 것도 사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이죠. 저는 일반 성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경을 가능하면 쉽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때 개인은 물론, 교회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많은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갈 때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인격과 품성에 변화도 일어납니다.

-이 곳에서 성경교육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요.

전체적인 숲을 볼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성도들이 보통 각론에 대해선 잘 아는 반면에, 총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을 보는 안목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성경이 어떤 의도로 쓰여져 전해졌는가에 대해서 말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인데 한 권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으로 넘어 올 수 있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신약으로 와야 십자가와 부활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파이널 골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다른 학교도 많지만 진짜 개혁신학을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나중에는 한국에도 대학을 설립할 생각입니다. 9월에 2학기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소)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문의: 213-389-8987

토마스 맹 기자

2012미주기독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 가능)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 Fax: 562-926-1025 / www.ptsa.edu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1/ Fax: 424-257-8136 / www.cohenuniversity.ac

국제개혁대학교 신학대학원
I-20 발행, 각종 장학금 혜택
KAPC 교단 직영 신학교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 Fax: 213-381-0010 / www.iruniv.org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This is the hand stretched out over all nations. (Isaiah 14:26)
520 S. La Fayette Park Pl. Suite #103 Los Angeles, CA 90057
Tel: 213-381-7007 / Fax:818-435-2441 / www.myccu.us

솔로몬대학교 Solomon University, SU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 28:18-20)
학위: 신학 학사/석사/박사 (BA, D.Min, Th.D), 교회음악, 문예창작
장학금 혜택 총장: 백지영 목사 부총장 : Dr. Brent Price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 Fax: 213-487-737 / www.solomonuniv.org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하고 개혁주의
신앙으로 신학을 정립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 일꾼들을 양성
1749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el: 714-879-7952, 714-393-7952 / hjung3155@gmail.com

국제비전대학교
정시/수시: (Offline, Online 강의)
학위: 학사/석사/박사 (D. Min., D.Miss., Ph. D.)
I-20 발행, 각종 장학금 지급
760 S.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293-5745 / 213-610-4989 / www.vision.edu

캘리포니아 두란노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신학.철학 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유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21세기 영성 리더의 산실!
(BA, M.Div, Ph.D 유학생 비자 발급, 각종 장학금 제도)
학장 : 김영화 목사
2007 E. Compton Blvd., Compton, CA 90221
Tel: 213-247-3652 / Fax: 310-609-141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 http://korean.fuller.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쉽의 준비.
1325 12th Ave L.A, CA. 90019
Tel: 323-731-981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SEMINARY
4055 Wilshire Blvd #419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9-8987

미주개혁신학대학교
SEVIS I-20 FORM 발행
신학과/ 선교학과/ 기독교교육학과/ 목회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유아교육학과/ 종교음악학과/ 문예창작학과
2706 Wilshire Blvd. 1st Floor, Los Angeles, CA 90057
Tel: 213-736-6500 / Fax: 213-736-6504 / reformeduniv.org

아메리칸 신학대학 및 대학원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323-732-7356 / Fax: 818-773-8868 / 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Tel. 562-869-7497 / www.mcuniversity.org

바울성경대학
말씀을 개혁주의 신학안에서 바르고 깊이있게,
성경 66권 전체를 공부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언제나, 오실 수 있습니다.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Tel. 562-394-3342 / paulbiblecollege@gmail.com

위클리프대학교
Wyclif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는
개혁적인 신앙과 바른 성서해석을 가르쳐
어두움을 밝히는 지도자, '개혁의 새벽별'
존 위클리프 같은 개척자를 길러낼 것입니다
14631 Leffingwell Rd. Whitter, CA 90604
Tel: 562-777-7078 / www.wyclifuniversity.net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 www.aeui.org

제23회 여름산상대부흥성회

세계 장애인과 함께

With the physically challenged of the world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2:13)

단기 선교를 그리운 고국 한국에서 장애인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장 김흥수 장로 원당반석교회
대표회장 김천기 목사 한동교회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 엘림교회
LA지부장 김천환 선교목사 사랑의 띠 선교회

단기선교문의

로스앤젤레스	한 국
지부장 김천환 선교사 213-736-6625(사랑의 띠 선교회)	고창수 목사 010-8870-5642, 02-2632-4806
하와이 지부 : 백애현 총무 808-383-6962	

- 우리은행: 173-245274-13-002
- Email: ellim54@hanmail.net
- 후원: 극동방송, 미주복음방송, 미주기독교방송, 시카고기독교방송, 한·장·선,서울운전기사 선교연합회
- 당일출발집결지: 영등포구청 지하철역 옆 (오전 10시) (5호선•2호선하차 영등포구청 옆)

일시: 2012년 7월 23일(월)~27일(금) 까지
집회: 새벽6시 · 낮11시 · 저녁7시30분

주최: 엘림장애인선교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가 30-2 유통상가 412-1
www.ellim1004.com / Tel. (02)2632-4806 · 2634-6557 Fax. 2679-5642

장소: 포천. 한국중앙기도원
경기도 포천군 영중면 성동4리 산 60-1번지(파주골)
Tel. (031) 531-1151~2, 533-0602

이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1부예배(EM) 오전 9:45
2부예배(EM)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가나안장로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5027 / canaanchurch.org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
어린이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강진웅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2:45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유초등부 오후 12:3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믿음교회
백천 세계 비전!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김영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0:00
영어장년부 오전 10: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갓스웰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류준영 담임목사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새교우반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금)
오전 7:00 (토)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윤선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9~11시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310) 973-5106 / F. (310) 973-7429
진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EM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박헌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00
찬양예배 오후 3:3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laopendoor.org
김성민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오전 10:00
금요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정우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11:00
성경공부 오후7:30 (화)
오전10:30 (수)
금요저녁예배 오후7:3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2부 오전 6:30 (월-금)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os Angeles, CA 90010
T.(213)598-0191
손병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김요셉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박용덕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박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펠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최성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8:00
2부예배 오전10:00
EM/Youth예배 오후12:00
AWANA 오후12:3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오전6:0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1:3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제자되어주님과사람을 뜨겁게사랑하며섬기는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김요셉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박용덕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Youth 예배 오전10:3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박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남가주펠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최성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8:00
2부예배 오전10:00
EM/Youth예배 오후12:00
AWANA 오후12:30
한어청년부예배 오후1:00
새벽기도회 오전5:30(화-금)
오전6:0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8:00 (매월 마지막주)
늘푸른선교교회
기도와 말씀으로 회복하여 일어나라
1250 North Red Gum St., Anaheim, CA92806
T.(714)632-9191,9192 / missionway.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EM)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중/고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대흥장로교회
찬송이신 주여 나를 고치소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후1:3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성령기도회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토요예배 오후 6:00
둘로스교회
예수님의제자되어주님과사람을 뜨겁게사랑하며섬기는공동체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douloschurch.com
이성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이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92802
T. (714)999-9900 / visioncc.org
손인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베델한인교회
우리가크리스천이다.내가 크리스천이다.하나님은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회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
벧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김성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토요연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한국어 학교 오전 9:30 (토)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15617 Burwood Rd., Victorville, CA 92394
T. (760) 220-3263, (760) 542-9366
신원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권을 누리는 성도의 삶 선교와 구제의 삶으로 실천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강신권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세계성경장로교회
내가 살구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김한요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0:30
4부예배 오후 12:15
5부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후 12:15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세리토스장로교회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90701
T. (562) 860-5451 / ilovecpc.org
김수철 담임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
(다운타운 4가 Crocker St.)
1부거리예배 오전 7:00
2부센터예배 오전 9:30
소중한사람들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1856 W. 11th Place, Los Angeles, CA 9000
T. (213) 385-4515 / F. (213) 385-547
조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09:00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며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고승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지 샤론 담임목사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오후 7:30
매일 오전 6:00(화-금)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균형잡힌 영혼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실제화, 생활화,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고 인도받는 선교센터
9850 Garden Grove Bl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우대권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후 1:30
목요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200 W. Alvarez Ave., #A Orange, CA 92868
T.(213) 291-5901 / (714) 833-2568
김혜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남성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김세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한기홍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30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박신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7:3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성령을 따라 (갈5:16)
1818 S. Western Ave., #200, LA, CA 90006
T. (323) 766-9922
박성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금)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민종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교회
서로 사랑하라
5005 Edenhurst Ave. ,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이종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성현경 담임목사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 (휠로우쉽홀)
오후12:00 (본당)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후 6:00 (토)
수요예배 오후 7:45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양성필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오전 6:00 (토)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김철민 장로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김기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50
3부예배 오후 12:00
4부예배 오후 2:22
EM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25(월-금)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20
LA사랑의교회
믿음의 지경을 넓히라
1111 W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12
T. (213) 975-1111 / F. (213) 975-1100
박세록 대표
'강을 건너 세계로' , '사랑으로 세상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섬김의 사람들이 되자
www. samcare.org
SAM CARE INTERNATIONAL
1309W. Valencia Dr., Unit #A, Fullerton, CA92833
T. (213) 447-8169 / F. (213) 381-1506

PCUSA, 동성애 홍역 올해도 계속

결혼 정의 '남녀' 에서 '두 사람의 결합' 변경 조항 다룰 듯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서 개최될 220회 미국장로교(PCUSA) 총회에 동성애 문제가 다시 한번 떠오른다.

지난 총회 때 상정됐다 향후 연구과제로 넘겼던 결혼의 정의 변경 조항이 그것이다. 이 안건은 결혼의 정의를 '남녀 간의 결합'에서 '두 사람의 결합'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다. 219회 총회 당시 본건으로 토론하지도 못한 채 부결됐던 사항이다.

이는 한 대의원이 본건에 대한 심사로 넘어가기 전에 '사회적 결합과 기독교적 결혼 제도에 대한 최종 보고서'와 함께 위원회 안 및 소수의견서 모두를 향후 연구 과제로 넘기자는 제안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찬성 348, 반대 324, 기권 6표의 근소한 차로 안건 자체를 다음 총회로 보류키로 한 것이다.

올해 '결혼 정의 변경'에 대한 안이 통과되면 미국장로교는 미국연합그리스도의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다음으로 동성결혼을 공식 인정한 미 주류 교단이 된다.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결혼 정의 변경' 안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지난 총회 때 1997년 이후 4번째로 시도됐던, 직분자의 '결혼과 독신 조건'의 삭제가 실제 인준되면서 더 주목받고 있다.

당시 통과된 안건은 미국장로교 헌법 G-6.0106b 조항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의 언약을 맺어 정절하게 살거나 독신으로 순결하게 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후보자는 필요한 시험을 통과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게 모시는 자여야 한다. 치리기관(당회 혹은 노회)이 후보자의 자질을 판단한다'는 문구로 대체하자는 제안이었으며, 표결에 부쳐져 찬성 373, 반대 323, 기권 4표로 통과됐다.

결국 지난해 총 173개 노회 중 과반수가 찬성해 공식 발효됐으며, 이로써 미국장로교 내 동성애자들도 교회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장로교의 동성애 홍역은 '결혼의 정의 변경'안이 올라오면서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총회장 출사표를 던졌던 동성애 옹호자 자넷 에드워드 목사는 최근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유는 갑작스런 남편의 병환으로 알려졌다. 에드워드 목사는 동성애를 찬성할 뿐 아니라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렌스젠더) 지지 그룹에 속해 있어 보수 측의 우려를 샀었다.

권나라 기자

신의 존재 의심하는 청년 5년새 급증

최근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설문조사에 따르면 30세 이하 청년들 중 '신의 존재를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에 찬성한 이들은 전체 응답자의 68%로, 지난 2007년 응답자 83%와 비교해 크게 떨어졌다.

반면 '신의 존재를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문구를 '부정'한 이들은 전체의 31%로, 이는 2007년 응답자의 2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젊은 층을 제외하면, 지난 5년 간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2% 이상 변동한 세대는 없었다.

'밀레니얼 세대와 종교에 관한 결과'는 지난 6월 4일자로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168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자료 중 하나로, 이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정치 성향, 동성결혼 및 낙태에 대한 입장 등을 다양하게 다뤘다.

조사에 따르면 젊은 층 사이 급증한 신의 존재에 대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는 종교적 국가라고 발표하고 있다. 한 예로 전체 응답자의 76%가 기도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요소라면서, '마지막 심판의 날, 우리 모두가 신 앞에서 죄를 자백하게 될 것'이라는 문구에 동의했다.

또 세대 무관 전체 응답자의 80%가 '신의 존재를 의심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무신론자 캠퍼스 단체인 세큘러 스튜던트 얼라이언스(SSA) 디렉터 제시 칼리프 학생은 "젊은 층의 무신론자 급증은 이와 같은 캠퍼스 단체의 급증으로 증명된다"며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왔을 때 무신론 단체를 찾아 가입하고, 없으면 자기가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SSA는 미국 전역 357개 캠퍼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2007년 이후 81개 캠퍼스가 증가했다.

칼리프 학생은 늘어난 무신론자에 대해 "인터넷이 청년들에게 종교적 입장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의 장을 만들었다. 이런 문화가 부모님의 눈치나 지역사회의 편견을 벗어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소견을 밝히기도 했다.

권나라 기자

남침례교단, 5년 연속 교세 감소 보고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교(SBC)가 지난 5년 연속 교인 감소세를 겪어 올해 1600만여 교인을 기록했다고 최근 라이프웨이 리서치가 발표했다. 이중 정기 예배 출석자 수 역시 0.65% 감소를 겪어 약 616만명으로 집계됐다.

167년 역사 동안 지속적 교세 증가를 보여 오던 SBC는 2004년부터 정체기를 겪다 2007년 최초 교세 감소를 보고한 바 있다.

최근 교세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0.15%, 2010년부터 2011년까지 0.98% 감소를 경험했으며, 라이프웨이 리서치 에드 스텟처 회장은 "이런 추세라면 2018년까지 감리교인 감소세를 따라잡을 것"이라며 "향후 감소세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단 내에서 침례받는 교인수도 서서히 감소, 2010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보고되면서, 다음해인 2011년 침례 수가 다소 증가하기도 했다. 당시 침례수는 0.70% 증가, 총 33만 3,341명을 기록했다.

침례 받은 교인수의 증가가 발표된 후 성명서를 통해 라이프웨이 회장 톰 S. 레이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회개에 이르는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쁨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스텟처 라이프웨이 리서치 회장은 "지난해 회원 교회수가 37개 늘었으나, 교회 수 증가 역시 작년과 비교해 미미했다"고 지적하면서 "SBC는 타 개신교단처럼 유지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현실을 직면하고 미래를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나라 기자

부목사 청빙 경쟁률 80:1

갈 데 없는 '무임 목사'들

수급 불균형과 대형교회 선호가 원인

'청년 실업'은 비단 사회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회에서도 '일자리 부족' 현상은 뚜렷하다. 한 해 배출되는 목사의 수에 비해 이들이 갈 수 있는 사역지는 적어 일종의 '공급 과잉'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교회 수보다 목사 증가율 더 커 사역지 포화상태

이는 구체적 통계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예장 합동의 경우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10년 간 교회 수는 6,795개에서 11,456개로 늘어 약 68%로 증가했고 교인 수는 2,300,327명에서 2,953,116명으로 늘어 약 28%의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같은 기간 목사의 수는 10,424명에서 19,268명(증가율 84%)으로 불어나 교회와 교인수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다. 예장 통합 역시 비슷했다.

이런 문제가 소위 '시차'로 인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한 교계 관계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는 기간에 비해 교인 수가 줄어드는 기간이 더 짧았다"며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할 당시 그나마 있던 사역지가, 공부 기간 동안 사라진 셈이다. 그러니 막상 졸업할 땐 갈 곳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장인 노영상 교수는 "예장 통합이 매년 900명 정도의 신대원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 등을 이유로 목회를 그만두는 목회자는 700명 정도로 예상된다"며 "매년 200명 정도의 잉여 목회자가 누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교수는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 교인수가 더 줄어든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선교사나 교회 연관 기간의 일자리, 이민목회 등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되었으나 이제는 그마저도 포화상태"라고 지적했다.

대형교회 가려면 수십 대 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집중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교회의 부목사 청빙에 수많은 신대원 졸업생들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히 대형교회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 신대원 학생은 "대형교회에 지원해 교역자가 되려면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노영상 교수도 "최근 시내 한 교회 부목사 청빙에 무려 130여 명이 지원서를 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경쟁률이 7~80대 1이라는 말도 들린다. 예전 담임목사 청빙에나 있을 법한 경쟁률이 요즘엔 부목사 청빙에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와 신학교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노 교수에 따르면, 이는 결국 목회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 그는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향후 신학교 진학률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졸업해도 갈 곳이 없다면 학생들이 신학교에 진학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원자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고 이는 교회의 위기와 직결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개척 기피, 비인가 신학교 난립 등도 원인

신대원 학생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신대원 학생은 "사실 마음만 먹으면 사역지를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일부 학생들이 원하는 사역지가 따로 있다는 것"이라며 "흔히 그런 사역지는 대형교회인 경우가 많다. 유학 등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보다 편안한 환경의 대형교회를 찾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과거만큼 교회 개척이 쉽지 않은 것도 원인의 하나로 꼽힌다. 한 목회자는 "요즘 교회 개척은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웬만한 각오 없이는 개척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비인가 신학교의 난립 역시 목회자 수급 불균형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일부의 문제일 수 있어 목회 본질 다시 생각해야

다른 견해도 있었다. 한 교회 부목사는 "신대원 졸업생들이 무조건 대형교회만 찾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어디든 좋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며 "다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대형교회가 아니면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이 있다. 그런데도 일부의 문제를 마치 전체의 것으로 부풀리는 잘못된 시각이 오히려 진짜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학교가 많은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신학을 가르치는 곳이 많다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며 "일자리가 없어 신학교에 가지 않는다는 것도 사역을 단순히 물질로만 측량하는 잘못된 모습이다. 그런 면에서 신학생들이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권면했다.

김진영 기자

교회 바자회 마켓 반찬 취급 하시는 분
하숙 하시는 분 (도매가에 드립니다)

* 플라스틱 그릇 무료 제공합니다.

취급 품목

오징어젓	고추전어	연근조림	명란젓	마늘쫑무침
어리굴젓	양념게장	우렁된장	창란젓	고추잎무침
가리비젓	양념깻잎	냉이된장	낙지젓	장어구이포
황세기젓	간장깻잎	간장고추	조개젓	파래무침
더덕무침	된장깻잎	된장고추	갈치젓	무말랭이

3109 W.Olympic Blvd #D
Los Angeles, CA 90006
서광식품(213)256-4707

위대한 기도의 사람 모세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과 그에 대한 사후 수습에 관련된 출애굽기 32-34장의 말씀 중에는 별 수 없는 인간의 모습, 즉 하나님의 은혜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먹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되는 것을 물리치시고, 모세의 가문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고 기도하면서, 백성을 용서하실 것을 간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직접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천사를 대신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위대한 모세의 기도는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나의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지워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은 정말 보통 사람이 이를 수 없는 믿음의 지고한 단계입니다. 특히 영적인 지도자가 된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중보기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도 모세는 파괴된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혹 아론을 대신할 지도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제사장 아론을 다시 용서해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모세는 앞으로의 길을 보여 주시고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달라고 간구합니다.

셋째로 모세는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이방민족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친히 인도하시겠다고 응답하십니다.

넷째로 모세는 결정적인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로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얼굴이 아니라 등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이 우리는 어떠한 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광을 돌릴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회복시키신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백성을 다시 받아들여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사랑과 인자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 행 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맹
지 사 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팩스 : (718) 228 - 9506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내가 겪은 6.25 전쟁

현순호 목사
에버그린한인교회

6월이 오면 전쟁의 악몽이 되살아난다. 1950년 7월 9일 평양에 살던 나는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앳된 청년이었다. 주일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 거리는 너무도 차분하고 조용했다. 남한이 북침을 해서 용감한 인민군이 반격을 했고 인민군은 삼일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낙동강까지 내려가 부산 점령도 시간문제라는 거짓 뉴스가 계속 나왔다.

마치 큰 태풍이 불기 전 잠깐 조용하듯, 앞으로 한국 전체를 화염으로 몰고 갈 악마가 숨을 고르고 있는 것을 무식한 나는 알지 못했다.

집 근처에 왔을 때 누군가 나를 부르더니 그 자리에서 신분증을 빼앗았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끌려 갔다. 징병이 된 것이다. 그리고 만 3년이 지난 후에야 꿈에도 그리던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부모님은 큰아들인 내가 그렇게 행방불명이 되고 둘째 아들 마저 미군 폭격에 죽자, 1.4후퇴 때 어린 세 딸을 이끌고 무조건 남쪽으로 내려와 대전 피난민 수용소에 머물렀다. 두 분은 얼마나 고생하셨던지 키가 줄고, 허리가 굽어지고 연세도 훨씬 많이 들어 보였다.

나는 나대로 평양역으로 끌려가 창문도 없는 화물차에 던져졌다. 그곳에는 음식도 전기도 변기통도 없었다. 이 열차는 낮에는 폭격을 피해 굴 속에 숨어 있다가 해가 지면 출발해 삼일 후에 강원도 덕원에 도착했다. 군복으로 갈아입고 수류탄 두개를 차고 바닥에 끌리는 긴 총을 메었으니 이제는 인민군 병사가 되어 버린 것이다.

낮에는 폭격을 피해 방공호에 들어 가거나 또는 깊은 숲 속에서 군가를 배우고 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며 밤마다 훈련을 하는 일은 너무도 힘들었다. 어느날 나는 사상이 불순하고 기독교적인 냄새가 진하다는 이유로 소대장에게 끌려 가 총살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첫 눈이 내리는 10월 초 내가 속한 부대가 만주로 후퇴를 하던 날 밤에 한 민가에서 식사를 하는데 몇 방의 총소리가 났다. 나는 장교나 간부들이 모두 도망한 것을 확인하고 바로 지금이 기회다 하며 도망쳐 산에 숨어 있다 국군에 귀순해 포로 신세가 됐다. 그 후 부산을 거쳐 거제도 그리고 논산으로, 지옥 같은 포로 생활이 삼년이나 계속됐다. 더욱 슬픈 일은 그 안에서도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 밖의 남북 전쟁만큼이나 잔인하고 처참하게 이뤄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휴전이 임박하자 포로들의 의사대로 이북을 가든지 또는 대한민국에 남든지 선택권이 주어 졌을때 나는 부모, 형제, 친구들이 있는 고향을 버리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한국을 택했고 얼마 후에는 석방되었다. 그러나 갈 곳이 없는 고아가 된 것이다.

6.25 전쟁은 너무나 희생이 컸다. 남북간의 인명 피해는 수백만명에 이르고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의 젊은이들의 피가 한국 땅에 뿌려졌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의 공장들과 크고 작은 건물들, 농토는 정말 폐허가 되고 길에는 절룩거리며 도움을 구하는 상이 군인들, 깡통을 든 고아들이 차고 넘쳤다.

그러나 그 역경에서도 얻은 것이 많이 있었다. 즉 작은 개발국가인 한국이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이 알려져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서 그 기회를 활용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졌다.

더욱 가치있는 일은 전쟁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강심장이 된 것이다. 내 가족이 잘될 수만 있다면 도둑질만 아니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생존의 투사가 된 것이다. 그 오뚝이 정신은 짧은 기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그 정신을 본받아 세계 만방에서 성공의 신화를 이루어 가고 있다.

나 역시 처절한 전쟁 속에서 살아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간다.

보편교회 체험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장영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러시아 쌍떼베쩨르를 방문했다. 박력있고, 호탕한 선교사님의 기질처럼, 러시아에서의 사역이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 시작한 미르신학교, 그리고 함께 공동구입한 건물도 잘 사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그중, 쌍떼베쩨르의 고려사람들 모임과 고려인교회 주일예배는 나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조선족이라 하는데,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는 고려인이라 부르는 것이 특색있다.

한국사람, 조선사람 혹은 고려사람이라 달리 부르지만, 피가 뭔지, 김치 맛에 끌리는 내 혀처럼, 러시아 고려인들을 향한 마음이 자석처럼 끌린다.

인자한 얼굴을 가진 고려인 할머니들은 정말 우리 할머니들과 똑같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권사님들과 구별이 안 갈 정도다. 그런데, '목사님'이라는 말만 한국말로 하고, 나머지는 유창한 러시아어로 말씀하신다. 목사 되기를 준비하는 김드미트리 전도사를 보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 같은데, 한국 말투는 북한말 같기도 하다.

벌써 3-4대에 걸친 이민의 역사 속에서 말은 변했지만, 문화와 한국사람다움은 신기할 정도로 공통점이 많다. 무엇이 그 민족성을 결정하는 것일까? 시간적으로 3-4대 이후 다시 만났는데도 서로에게 이끌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냥 외지에서 만난 한국사람이라는 단순한 반가움일까? 성이 김씨라서 피가 부르는 원초적 본능일까?

유태인 출신 러시안교회 성도들과 고려인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선교에 뜻이 있는 아이리쉬 여선교사님과 미국에서 온 우리 부부가 함께 야외에서 바베큐를 했다. 오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부슬부슬, 날씨는 을씨년스러워 공원에 사람 하나 없었지만, 비내리는 공원을 우리가 전세내고 사용하듯 한적하고 조용한 시간을 가졌다. 비가 내려도 숯불을 피워 고기를 구워 먹었다.

역시 한국사람, 유태인, 그리고 러시아 사람이었다.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말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지만, 고려인교회에서 서로에게 끌리던 정과 사랑이 또 솟구친다. 고려인들에게 끌리던 것이 피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마, 민족성과 핏줄을 뛰어 넘는, 서로에게 끌리는 신앙의 자장이 있는 듯 하다.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보편교회' 체험이 아닐까 싶다.

Dealer No. 62655

중고차 황제
김 기 형
213-453-5900
714-743-1000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 9장 23절

훼밀리자동차
FAMILY AUTO SALES
213-747-5900

$중고차 고가매입$
"기본 $700 더 드리는 훼밀리자동차"
새차 리스, 중고차 매매
전차종 All Makes & Models
HONDA, TOYOTA, LEXUS, BMW, MBZ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경매장 안내해 드림

www.familyauto.us
중고차를 판매하시면 새차는 원가에 뽑아드립니다.

213-747-5900
714-743-1000

1230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Classified AD

중고차 황제 김기형

훼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213-453-5900 / 714-743-1000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5

당뇨에는 동의 당뇨환
동의 당뇨환을 복용하는 순간부터 그 효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100% 순수 한약재로 되었음
2. 식사가 어느정도 완화됩니다.
3. 피가 청결해져서 최대한의 합병이 억제됨
4. 식후에만 삼회 복용합니다.
5. 당 수치가 조절됨에 따라 동의당뇨환의 복용량을 줄여가다가 끊을 수 있습니다.

실로암 한의원 2621 W.Olympic Bl #202 LA CA 90006 213-427-0036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넥스입니다.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inexcollisioncenter@yahoo.com
inex AUTO COLLISION CENTER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BSBFJ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시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 입니다!
퇴거.파산.이혼.이민.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윌셔+킹슬리

사고 팝니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야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라지용 Boltless Shelving
창고용 Pallet Rack
마켓용 Gondolas
중고 선반 대량 보유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러쉽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텐 전문
가 주 L.A. 커텐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WINDOW FASHION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cliff Ave. Lancaster, CA 93535

빠른 효과 치료
베니스 한의원
특별진료과목 [감기/비염/위장병] 예방및 근본치료 원칙
▪ 각종위장병, 만성변비, 방광염, 잦은소변
▪ 중풍, 반신마비, 대상포진, 안면마비, 오십견
▪ 신장결석, 담결석 (전통비방특수한약)
침/전침/화침/불부황/고약/보약/공진단/소화환
유학생 여행자 교통사고 건강보험상담
213.271.7002
2270 W. Venice Blvd LA, CA., 90006
웨스턴과 베니스 사거리 테크노 잉크 주차장
WWW.LAHERB.COM

황씨 냉동. 에어컨. 히팅
신속. 정확. 저렴 전지역 가능, 24시간 대기
상업용: 마켓 식당 리커, 냉동냉장, 웨어하우스 교회 센츄럴 A/C, Walk-in 냉장, 냉동설치 및 수리, Ice Cream 머신수리
가정용: LG벽걸이 A/C설치 수리, 하우스 아파트 센츄럴 A/C 냉장고, 설치 및 수리
(213)220-7131 (626)807-8799

Kim Ji Young Hair gallery
Kate Cho
헤어디자이너 케이트 조
Man's cut $10.00 Women's cut $20.00
영양펌,웰빙펌,야채펌 $50.00 하이라이트,코팅,염색 $50.00
매직 스트레이트 펌 $80.00
반드시/꼭 예약필수!! 213.505.5756
430 s western #101 Los Angeles CA, 90004

골드핑거 양복점 직접재단 직접재봉
삼성이 만든 명품 양복지 골든텍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양복점 에서
수제양복을 입어보세요. 귀하의 품위가 나타납니다.
(213)386-5858 975 S.VERMONT AVE. #102 LA CA 90006

동산한의원 30주년
50년
경험방으로 특수치료
50%할인가격으로
드립니다.
213-382-0067 2621 W. Olympic Blvd #20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렌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튠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먹고바르기도하는 알로에
인디안 알로에 베라
다년생 초본만을 선별하여 특정부위에 원액을 체취함으로 최고의 효과와 효험을 볼 수 있습니다.
99.6%
위장(위궤양), 방광, 신장, 전립선, 변비통,피부상처, 화상 등에 치료와 예방
TEL.(213)736-6625
www.indianaloevera.com

세계일류 상품 인증 획득 미주총판 www.Caidrox.com

*Black Box(차량용 영상저장장치)란?
주행이나 주차시 예기치 않은 모든 사건 사고등을 영상으로! 속도, 위치, 시간, 음성을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위기의 순간 유일한 목격자
Black Box LA, INC. T.562-495-9987

비영리단체 설립 및 면세허가
(교회, 선교단체등)
▶ 처리경험 풍부 www.UsCpaLegal.com
▶ 비영리단체 세무상담, 장부정리(Quick Book), Tax 보고
▶ 일반 영리 사업체 설립 및 각종 세무보고
▶ IRS, EDD, FTB등 세무감사 수감
Kim & Accountancy Tel. 714-226-0900

sasafterschool.blogspot.com
믿고 맡기세요.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집니다 K~6
Math
English
E.S.L
Writing
Bookclub
APPLE TREE ACADEMY
Pick UP, 건강한 식단과 함께
학교공부 전반을 100% 도와 드립니다.
213.507.5045

가디언 컴퓨터 수리
213-663-8007
213-536-4696
317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식재료 도·소매
▪ 주일 예찬 식재료 (양념, 젓갈, 김, 김치 각종 장류, 밑반찬)
▪ 교회 바자회 물품 (음료, 스넥, 견과류, 각종 공산품 등)
▪ 참숯 (바베큐용)
▪ 각종 Tea (커피, 둥굴레, 홍차, 녹차 등)
☎ 818-306-7652

Value Windows & Doors
이중창문교체전문
특별세일
햇빛차단 Low-E3
➡ 창문 10개이상 Order시 블라인드 가격 10% 할인
창문 인테리어의 모든것 - VIVA BLIND
비바블라인드
상업용 ROLL SHADE 전문 제작
전통 모터 시스템
▪ 커튼-맞춤전문(Custom Made)
▪ 블라인드 - Bass Wood, Faux Wood
▪ Bass Wood Shutters 전문
▪ 마루바닥 - 원목, 인조마루 취급전문
TEL.(213)-389-0070
1411 W. 8th Street, Los Angeles, CA 90017

그레이스 최 척추신경 한방병원
www.herbsabu.com
밥을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습니다.
내장비만 & 다이어트
현대인의 고질병인 비만! 몸 속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배고픔이 없고 요요현상 또한 없이 위장이 줄어 소식생활로 건강해집니다.
금연클리닉 스페셜$200 (끊을 때까지 치료)
양방/한방 두가지 치료를 병행하여 뇌가 자연적으로 엔돌핀을 생성하게 하여 니코틴을 찾는 것을 막음으로 담배를 끊게해드립니다.
726 S. Wilton Pl. #2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1-8228

귀국 자동차운송 업계최저 $950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www.easy2424.com

홈페이지 제작
제작비용 걱정, 이제 그만!
$499
저렴하고 빠르게 제작
풍부한 제작경험을 토대로 정성껏 제작해드립니다.
제작문의 213.587.3498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 와 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세상 속의 소금과 빛, 우리는 크리스천〉

"미 주류사회에 한의학의 우수성 알려야"

[인터뷰] 만성내과질환 전문 가야한의원 윤동원 원장

"닉슨 대통령 재임 당시 중국에서 동양의학이 들어 왔는데, 그 영향으로 아직까지 미 한의학계엔 한국적인 것보다 중국적인 것이 더 많습니다. 한국 한의학만이 가진 우수성을 알려서 미 주류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는 기반을 닦는 게 제 바람입니다."

가야한의원 윤동원 원장을 만났다. LA 소재 삼라한의과대학에서 임상지도교수와 인턴 수퍼바이저를 역임한 그는, 현재 필드에서 교육과 대학 강의를 통해 후배들에게 사암침법과 사상의학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 나이 64세. 미국에 이민 온 지는 어느덧 2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윤동원 원장

그는 원래 한국에서 인하공대를 졸업한 이공계 출신이다. 그랬던 그가 결혼 후 진로를 바꿔 한의학에 발을 들여놓게 된 데에는 장인어른인 노정우 선생의 역할이 컸다. 지금은 고인이 된 노 선생은 경희의료원 초대 한방병원장에 재임하며 한국 한의학 박사 1호로 알려진 한의학계 원로다. 윤 원장은 이런 장인어른을 뒷바라지 하면서 한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책도 접하면서 배우기 시작했고, 도미 후 본격적으로 한의학의 길을 걷게 됐다.

그는 대학에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칠 때 미국식 사고방식에 맞춰 '의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공학도 출신답게 한의학 이론을 과학화·객관화·표준화 작업을 거쳐 이해시키고자 노력한다. 실제로 인체의 기의 흐름(유주)을 도식 이미지로 만들어 설명하고 있기도 하다. 이 방법은 한국의 유명 경락연구소에서 벤치마킹할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장인의 뒤를 이어 한의사가 된 윤 원장은 슬하에 1남1녀를 뒀다. "혹시 아들 딸 중에 한의사는 없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 없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나이와 관계없이 학문에 접근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얼마든지 한의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딸과 며느리가 한의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슬쩍 내비친 그는 한의사라는 직업이 특히 여성에게 좋은 직업이라고 추천했다.

"평생 책을 끼고 공부해야 하는 직업이지만 한의학을 어렵게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여성들도 집안에서 가정일을 돌보며 자유롭게 시간을 투자해서 학업을 연마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투자 없이도 면허 하나로 평생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요. 무엇보다 동양의학이 미 주류사회에 들어온 지는 40년 밖에 안 돼 아직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새롭게 개척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 "여자의 추리는 남자의 확신보다 더 정확하다는 말이 있다"면서 "전문적인 과학지식을 요한다기보다 자연과 맞닿아 있는 학문이기에 남성에 비해 섬세한 여성들에게 적합한 직업"이라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대학에서 여학생이 입학하면 "아주 잘했다"고 격려한다고.

"나이 들어 한의학을 공부하는 건 어렵지 않나"는 질문에는 "한의학은 생활의학이다. 즉 주변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자주 접할 수 있는 소재들로 만들어진 학문"이라며 "젊은이들에 비해 오히려 인생을 오래 살아 온 나이 드신 분들이 이해하기가 더 쉽다"고 말했다. 그는 "교계에도 한의사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기왕에 발을 들여 놓았으니 한의학을 선교의 부수적 차원으로만 여기지 말고, 학술적 기반을 넓혀 영육간 전인치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여 보다 차원 높고 전문화된 사역 분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만성내과질환 전문의인 윤 원장에겐 고질적인 내과환자들이 많이 찾아 온다. 한인과 외국인 환자 비율은 20대 80이다. 최근엔 일본에서 관절염, 피부병, 만성 피로 질환을 앓고 있는 난치병 환자 3명이 비행기를 타고 와 진료를 받고 돌아가기도 했다. 일본인 학생도 그에게 한 달간 배우고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취직이 돼 감사의 뜻을 전해 왔다.

그는 환자를 대할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질병의 결과를 갖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찾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너무 양의적으로 접근하면 치료방법을 못 찾는다"면서 "양의와 한의의 접근법 자체가 다르기에 무리하게 맞추려고 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만의 독립적인 체질과 성품을 이해하고 평소 섭생과 사회생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했다.

주소) 621 S. Virgil Ave. #209
Los Angeles, CA 90005
연락처) 213-400-1012

정한나 기자

강력한 항암효과 지닌 겨우살이

판매수익금은 기도원 건립과 기아 어린이 돕기에 사용

-Hope Herb Center(소망원)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소망한의원(LA한인타운 소재)을 줄여서 소망원이라고 명명했고, Hope Herb Center라고도 합니다. 박주호 원장님은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주일예배 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침술을 제공하는 등 섬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의원에서 겨우살이 약초를 직접 채취,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나성소망교회가 추진 중인 기도원 건립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이 기도원은 LA의 소형교회들을 위해 개방됩니다. 또 수익금의 일부는 월드비전을 통해 10명의 어린이 후원, 선교사를 통한 볼리비아 어린이 후원에 사용됩니다.

나성소망교회 부설 Hope Herb Center(소망원)의 정기덕 전도사(위원장, 左)와 이현기 장로(부위원장, 右)

-겨우살이는 무엇인가요?

특유의 노란빛으로 '황금가지'라고도 불리는 겨우살이는 나무에 기생해 사는 식물입니다. 주로 참나무, 물오리나무, 팽나무, 밤나무 등에 기생해 살며 동양은 물론 서양에서도 악귀를 쫓는 신성한 식물로 알려져 왔으며,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신이 내린 영초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독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감기 등의 기관지 질환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암, 폐암, 신장암 등을 치료하는 효능을 지닙니다. 이외에도 신경통, 관절염 치료, 이뇨작용, 고혈압, 지혈 작용, 당뇨치료에 좋습니다. 이것은 약품이 아닌 식물로 취급되며 석달 이상 꾸준히 음용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인 겨우살이 제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독성과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건강 식품 안전 보험도 들어 있고, 상품특허가 '겨우살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품 종류는 박스(티백)와 병(가루) 두 가지가 있고, 박스는 8그램 짜리가 30개가 들어 있으며, 티백 하나에 1.5리터 정도의 차를 3번까지 우려 먹을 수 있습니다. 가루는 약간 큰 티스푼 2개로 티백과 같은 양의 물을 3번까지 우려먹을 수 있습니다. 가루 제품은 커피메이커에 1.5리터 정도의 물을 내려 먹으면 편리하고 좋은데 진하게 먹고 싶으신 분은 물을 적게 넣으면 되고, 연하게 먹고 싶은 분은 물을 더 넣으면 됩니다. 겨우살이는 차 같지만 차가 아닌 건강식품입니다. 이것을 내린 물로 밥을 하면 건강에도 좋은 영양밥이 됩니다. 앞으로 제품 종류를 늘려 겨우살이 효소, 엑기스 등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판매처: 4055 Wilshire Bl.
Los Angeles, CA90010
▲문의: 213-380-0258

빅터 박 기자

인터넷 전화의 대명사 아이토크비비 LA에 상륙

아이토크비비 LA 직영점 오픈 기념 행사가 코리아타운 갤러리아 몰에서 열렸다.

인터넷 전화의 대명사 아이토크비비가 최근 LA코리아타운 갤러리아몰에 LA 제1호 직영점 개점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배무한 한인회장과 중앙일보 조병환 대표를 비롯한 각계의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했다. 다이앤 김 상무는 "올해로 미주 진출 4주년을 맞이해 고객들께 한 발 더 다가서고,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인타운의 중심에 제1호 직영점을 오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상무는 "한인사회를 위한 문화, 의료, 봉사 등 많은 일들을 앞으로 펼쳐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이토크비비는 지난 6월 6일 고객 감동 서비스 실천의 일환으로 LA CGV에서 영화 '코리아' 단독 시사회를 갖기도 했다.

코리아타운 갤러리아몰에 문을 연 아이토크비비 직영점에서는 개점 기념으로 신규 가입 고객을 위한 다양한 사은품을 준비했으며,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선착순으로 무료 국제전화카드를 나눠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매장 내에는 아이토크비비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아이토크비비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동시에 무료로 국제전화를 이용할 수 있어 LA 지역 한인들로부터 큰 호응이 예상된다. 문의: 800-872-2902
www.Korea.iTalkBB.com

한주연 기자

2012 최신형 EQUUS

8 스피드의 넘치는 힘과
력셔리한 중후함을 느껴보세요

499 +TAX (STK:049208)

Closed and lease 36 month plus tax
MSRP: $59,650 Residual : $39,422
T.D.O: $5,400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
(O.A.C)

800대를 수용하는 에쿠스를 가장 많이 보유한 북미 NO. 1 현대딜러

GENESIS

269 +TAX (STK:197000)

Closed and lease 36 month plus tax
MSRP: $35,225 Residual : $19,726 T.D.O: $2,4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Military Rebate, Comp. Coupon(O.A.C)

2012 Sonata GLS M/T

EPA 기준 대형차급 실내공간
2011년 정부 안전기준 별 5개를 획득한 최초의 중형세단

129 +TAX (STK:465125)

Closed and lease 36 month plus tax
MSRP : $20,970 Residual : $12,162 T.D.O : $1,999 No Security Deposit
For 12k Per Year
Plus College Rebate , Millitary Rebate, Valued Owner

6월 한달 푸엔테힐스 현대가 드리는 혜택

(행사기간 2012년 6월1일~30일)

1. 구입하는 모든분들께 유명 골프장에서 4분이 무료 라운딩 할 수 있는 티켓을 드립니다.
2. 평생 카워시

6월 한달간
무이자(0%)에 $1000을 더 드립니다.

America's Best Warranty 10 Year/100,000 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HYUNDAI PHH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Fleet Manager
찰리 정
213.276.8959

Sales
스티브 장
213.235.6825

Customer Care
제니 김
310.749.7599

Sales
매튜 김
714.797.3571

WWW.PHHYUNDAI.COM
1-888-212-6431

LA한인타운과 오렌지 카운티에서 20분거리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s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